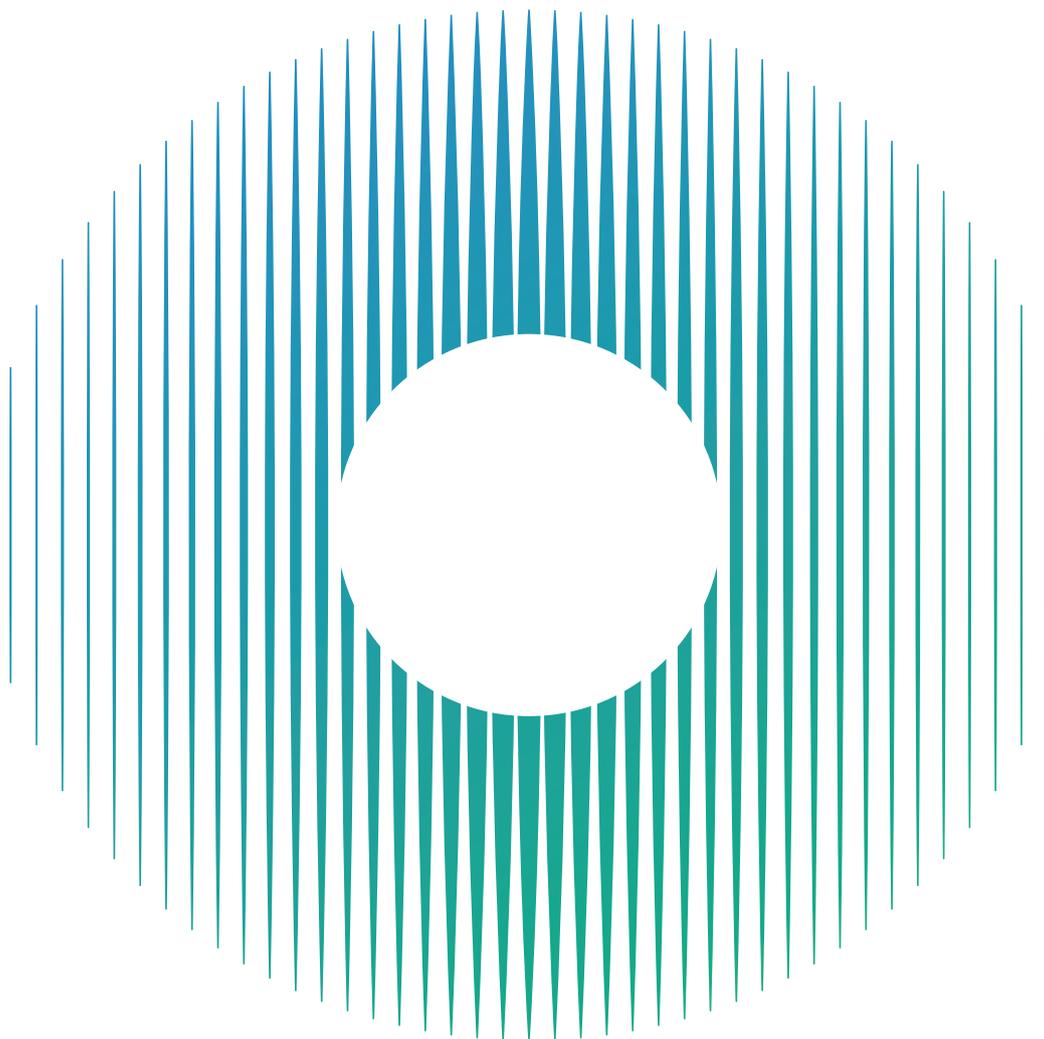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6년, 2월. vol. 07(격월간)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6년 2월 24일  
제작 (주)현대아트컴

## CONTENTS

### 이슈 노트

#### 공익적 가치의 임팩트 측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겸임교수, (주)더가능연구소 부대표

### 사업 소개

####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학교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

### 테마 칼럼 1

#### 제주 수놓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테마 칼럼 2

#### ‘적절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든든한 주거복지기금’

이제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 테마 칼럼 3

#### 제도 바깥 나홀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마중물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 공익적 가치의 임팩트 측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겸임교수  
 (주)더가능연구소 부대표



### 1.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강국들이 모이는 G7 회의에 한국이 초대받았다고 해도 낮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마냥 축배를 들기에는 찝찝하다. GDP만큼 우리 사회적 역량도 세계 10위권 이내로 올라섰을까? 최근 국가별 번영지수(Prosperity Index)<sup>1)</sup>에서 확인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표는 100위권 밖이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 ● GDP가 보여주지 못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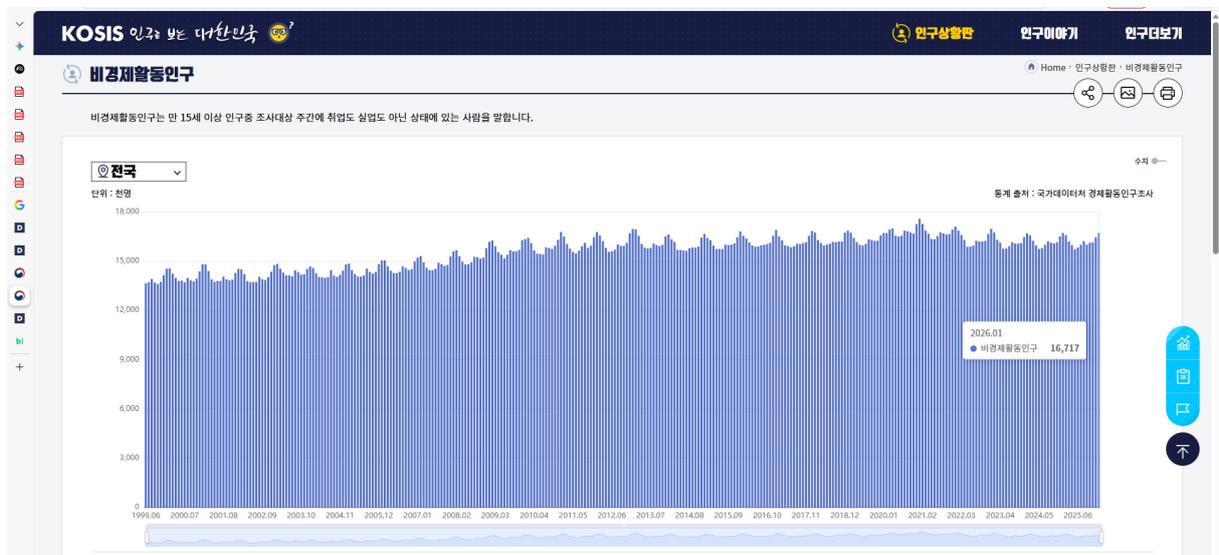
메릴린 웨어링(Marilyn Waring)은 지난 20세기 말(1988년) 자신의 저서 *If Women Counted*(여성이 계산된다면)에서 시장에서 돈이 오가는 활동만 생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통적 국민소득 개념을 비판한 바 있다. 가정 내 돌봄·가사노동, 지역 공동체 활동, 자원봉사처럼 주로 여성이 담당해 온 일이 경제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숲을 훼손하여 상품을 만들면 GDP는 늘지만, 자연 파괴나 돌봄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는 GDP 수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GDP가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자연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축소·은폐되는 현실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시장에 팔리는 것'만 중요하게 기록될 뿐이다. 생명 유지·재생산·돌봄 같은 사회적 가치 활동은 GDP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낸시 프레이저는 2023년 *Cannibal Capitalism*(식인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자본주의가 네 가지 보이지 않는 토대의 위기(불평등, 돌봄 위기, 생태 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잡아 먹는다고 갈파한 바 있다.

1)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2007년부터 매년 국가별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행복이란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지표와 물질적 부, 삶의 만족도까지 포함해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 **비경제활동 인구는 불필요한 잉여에 불과한가?**

공익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살만하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가치이다. 이를 통계청 수치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sup>2)</sup>는 총 1,597만 9,000명(※2026년 1월 기준 1,671만 7,000명)으로, 그중 여성이 992만 8,000명이고 남성이 605만 명이다. 그리고 활동 상태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가사가 575만 5,000명이고 육아가 65만 8,000명인 반면, 남성의 경우 육아가 1만 2,000명이고 가사는 22만 8,000명이다. 여성의 경우 무급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무려 641만 3,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GDP 측정기준과 같이 생산적 활동을 못하는 불필요한 잉여에 불과한 것일까?

[그림 1] 비경제활동 인구(1999.06~2026.1)



\* 출처 : KOSIS

2.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490.9조 원 상회**

비시장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제기구(UN)에서 각국에 대안적인 가계생산 위성계정<sup>3)</sup>작성을 권고<sup>4)</sup>하였다.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을 기점으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현 소득통계(GDP)는 가계 내에서 가사 및 개인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경우

- 2)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체계의 중심계와 정합성은 있지만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부속계정을 말한다.
- 4)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Guide on Valuing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UNECE).

경제적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생산·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작성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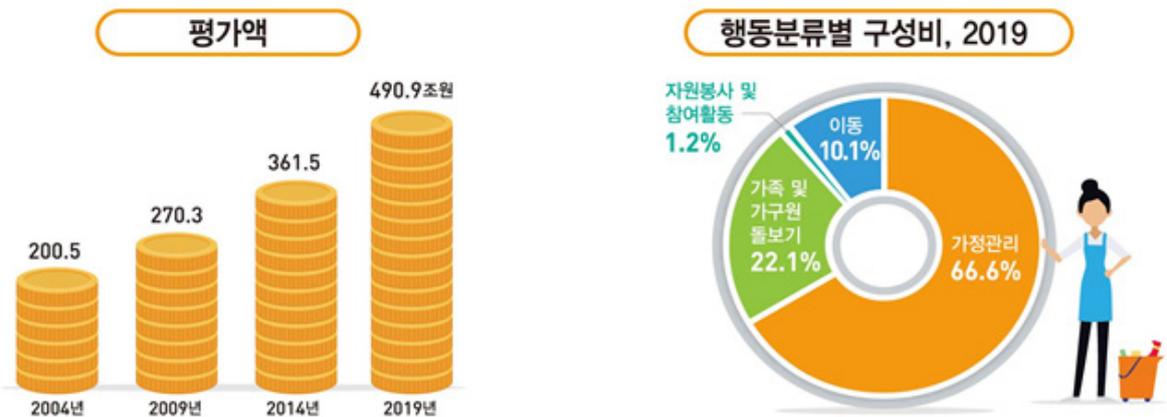
통계청의 가사노동 위성계정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가치 비율은 2004년(22.1%)부터 2019년(25.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949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3% 증가했다.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1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9.6% 증가했고, 여자는 1,380만 원으로 27.9% 증가했다<sup>5)</sup>.

〈표 1〉 무급 가사노동가치(2004~2019)

	2004	2009	2014	2019
무급 가사노동가치	200,538	270,348	361,502	490,919
증감률	39.0	34.8	33.7	35.8
명목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가치 비율	22.1	22.4	23.1	25.5

(10억원, %)

[그림 2] 무급 가사노동가치 및 구조



● 가사노동 가치의 가시화가 갖는 의미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가 비로소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가시화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사노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첫째,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동을 공식적인 경제·사회 체계 안으로 끌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조금 더 넓게 볼 때 무급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임금을 받는 일만 노동’이라는 전통적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돌봄·재생산 노동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노동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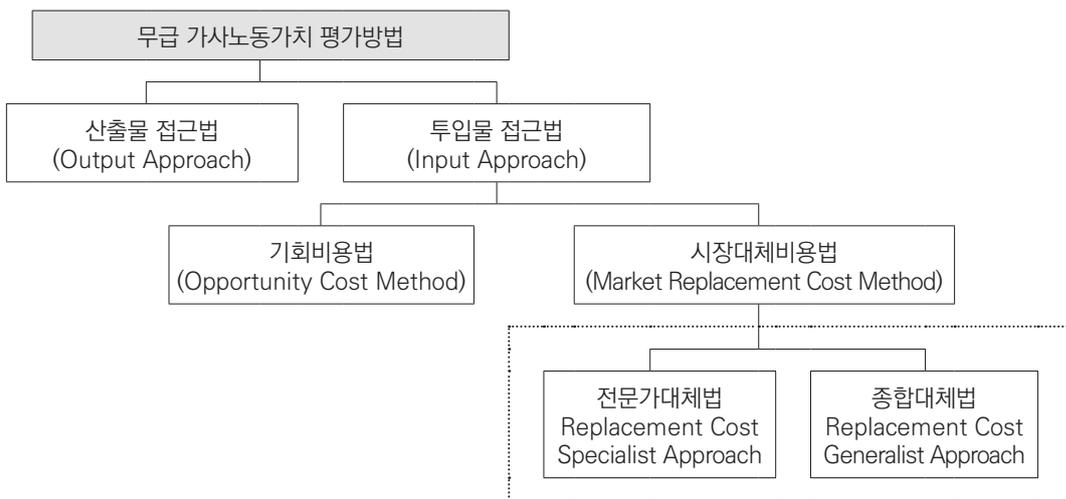
5) 통계청, 2021, 「가계생산 위성계정(1999~2019)」.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통계를 2021년 제시한 이후 아직 최근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19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 **가사노동 가치의 측정 방법**

UN의 가계생산 작성지침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할 때 산출물 접근법보다 투입물 접근법을 추천한다. 산출물 접근법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생산된 서비스(예, 청소, 요리, 보육 등)의 양(물리적 양)을 직접 측정하여 총산출물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출물 접근법을 취할 경우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청소 서비스의 면적, 요리된 음식의 양 등과 같이 가사노동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 투입물 접근법은 각 무급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예: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에 적절한 임금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에 시장 임금을 곱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UN의 가계생산 작성지침은 투입물 접근법 중 기회비용법<sup>6)</sup> 보다는 시장대체비용법<sup>7)</sup>을 권고한다. 나라마다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데, 시장대체비용법의 전문가대체법과 종합대체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가령 프랑스는 전문가대체법, 핀란드는 종합대체법, 캐나다·멕시코·호주는 준전문가대체법을 사용한다.

〈표 2〉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 출처: 통계청, 2021, 「가계생산 위성계정」, 133쪽.

- 6)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 벌어들이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으로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고소득자 소득까지 반영되어 과대평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7) 무급 가사노동에 소비된 시간을 시장 부문에서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시간당 임금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중 전문가대체법은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시켜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종합대체법은 가계 내에서 행하는 모든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 ● 사회적 가치 평가의 현주소와 과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통계·정책에서 간과되던 활동(가사·돌봄, 자원봉사, 환경·공동체 기여 등)을 수치화·정성화해 ‘공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이 작업의 수준은 무급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시간×시장임금’ 방식으로 추정해 GDP의 보완지표로 제시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방법론적으로 현행 평가는 ‘행동으로 드러난 시간’에 비례해 가치를 부여하는데, 기획 노동(식단·행사·재무·교육 계획), 정서·감정노동, 장기·비정기적 활동, 동시수행 노동 등은 과소 포착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향후 보이지 않는 가치 평가가 복지·돌봄 인프라 확충, 돌봄수당·세제 지원, 사회보험 인정,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등 구체적인 제도 변화와 더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임금 대체방식에만 의존하면, 결국 ‘시장에 나가면 얼마 받았을 노동인가’라는 기준에 갇혀 돌봄·관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법, 행복·삶의 질 지표, 사회적 효용(돌봄의 장기 효과) 등을 결합한 다원적 평가틀로 한 단계 더 발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표를 만드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어떤 가치를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 누가 그 가치를 만들어 왔고, 그 부담과 보상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다.

####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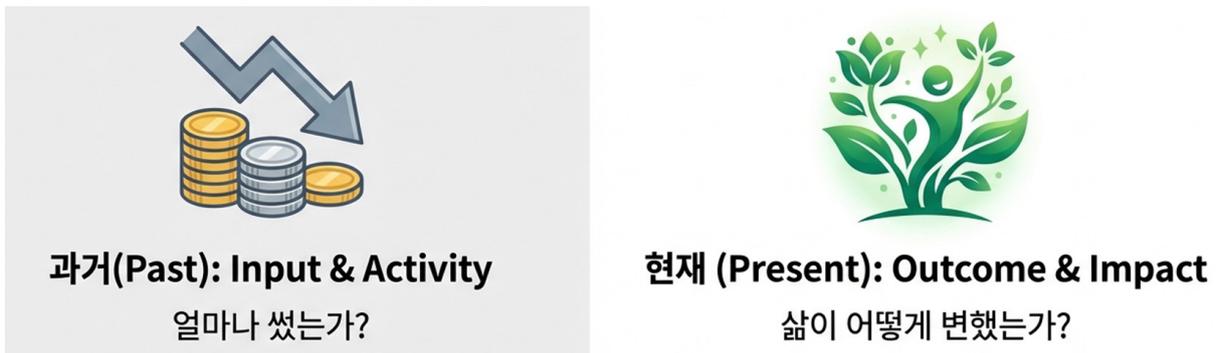
필수불가결한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해 왔으나 성장과 생산에 주력한 20세기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 온 것이 공익적 가치이다. 정부만의 역량, 시장만의 역량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를 상징하기 위해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과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성장과 발전 중심 패러다임의 영향 탓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활동 성과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 지속가능한 활동 여건이 위협받고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의 부정적인 시선도 위협이다. “세금을 이렇게 퍼주었는데 성과가 뭐냐?”, “○○○지원사업은 돈 먹는 하마다.”, “○○시의 공간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는 보도 내용들이 그 사례다.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비영리 조직과 공익 활동가들에게 자신들 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숙제이자,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공익활동 생태계는 “좋은 일을 하니까 훌륭하다”는 당위를 넘어서 필요를 요청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점이다. 공익활동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사회적 임팩트**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 선한 의도를 넘어 증명 가능한 변화로

비영리재단, 시민사회 단체의 사업은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수혜자의 삶과 사회에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사업의 방향과 성공을 측정하는 일종의 ‘나침반’이다. **사회적 임팩트**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창출하여 사회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영향력(또는 힘)을 의미한다.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한다는 것은 공익적 활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그려보는 과정이다. “얼마를 썼는가?”에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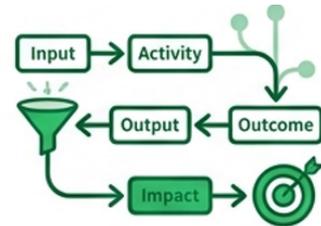
[그림 3] 공익활동 사회적 임팩트 측정의 핵심 맥락



### ● 사회적 임팩트를 포착하는 핵심 방법론

첫째,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를 기반으로 변화가 어떤 투입과 인과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 논리적으로 도식화해 사회적 임팩트를 설계,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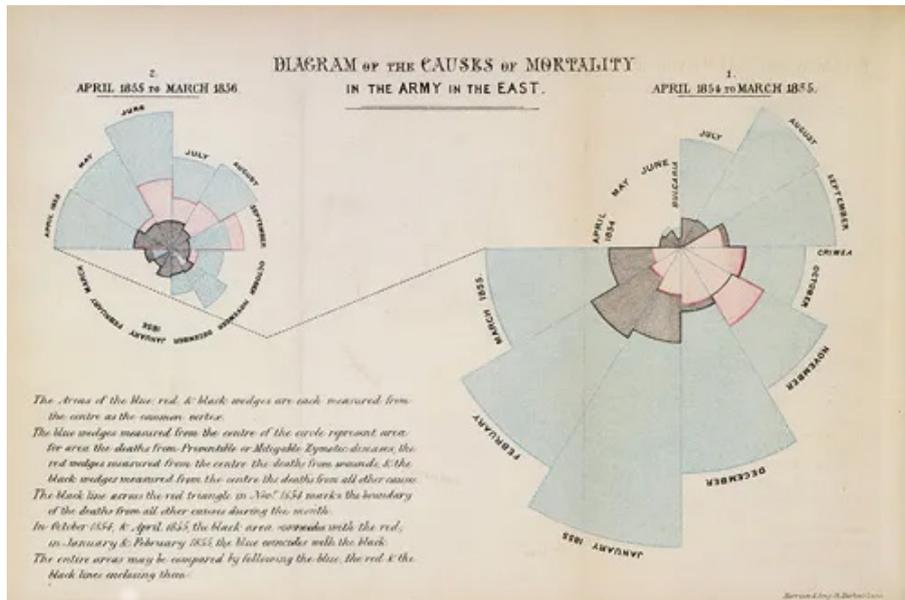
변화이론은 특정 사업이나 조직의 활동을 투입-활동-산출-성과-임팩트로 이어지는 경로를 한눈에 정리한 청사진을 만들어 내기에 유용하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를 연결하는 ‘가정’(assumptions)과 ‘맥락’(context)에도 주목해 이 인과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린 데이터(Lean Data)의 활용이다. 린 데이터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데이터를 말한다. 우리는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실제 임팩트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또는 쓸모)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1850년 크림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병사들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사망과 연관됨을 깨닫고 병사들의 사망 원인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녀는 병원의 입원, 부상, 질병, 사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투로 인한 부상보다 전염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병원을 청결한 상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다. 나이팅게일이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sup>8)</sup>.

8) 이은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법”(Table Talk 55호, 트리플라잇), 『NEWNEEK』(2024. 11. 11.) <https://newneek.co/@tabletalk/article/14088>.

[그림 4]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



린 데이터란 이와 같이 수혜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시화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교환가치로의 변환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화폐화 측정(Monetary Valuation)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무형의 가치를 사회적 교환가치로 변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광범위한 교환가치로 사용되는 화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할 경우 그 가치를 다른 가치들과 비교,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 ● 성과 측정의 패러다임 전환: 실적(Output)에서 임팩트(Impact)로, 가시화로

과거 공익활동 평가가 투입 예산이나 수혜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Output)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실질적인 변화(Outcome/Impact)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꿈은 임팩트 측정의 어려움은 '임팩트 정의', '데이터 부족', '성과의 객관화'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의 미션에 부합하는 '원리 기반(Principle-based)'의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으며, 변화이론을 통해 활동과 성과의 연결 고리를 규명하고, '린 데이터' 방식을 도입하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려는 노력이 많아졌다. 화폐화로 환산하는 것의 장점은 서로 다른 활동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게 하고, 재무적 정보와 통합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행정의 보조금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과 재능 기부를 조사해 '주민자원'으로 명명하고,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4. 경기도 마을임팩트 측정 사례

주민자원지표를 통한 화폐화 시도

주민자원지표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가 마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조금을 통한 사업실행을 제외하고 투입한 주민들의 인적·물적 자원 일체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주민자원지표가 개발된 것은 “마을 활동가를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된 주민의 자발적 자원 결함을 수치화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된 주민자원을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 4개 항목과 15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주민자원 유형 분류

대분류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
세부항목	회의	강의	공간	현금
	홍보	컨설팅	차량	
	행정업무	퍼실리테이팅	대여물품	
	공간운영	기술	기부물품	
	실무		식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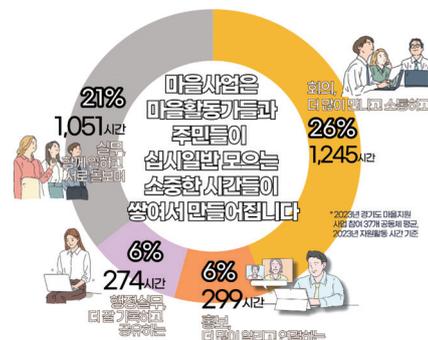
\*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3, 「경기마을대단해, 마을임팩트 보고서」, 92쪽.

주민자원 조사결과, 마을 주민이 스스로 조달하고 연결하는 주민자원의 유형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채우는 마을사업을 시간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 [그림 5], [그림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5] 주민자원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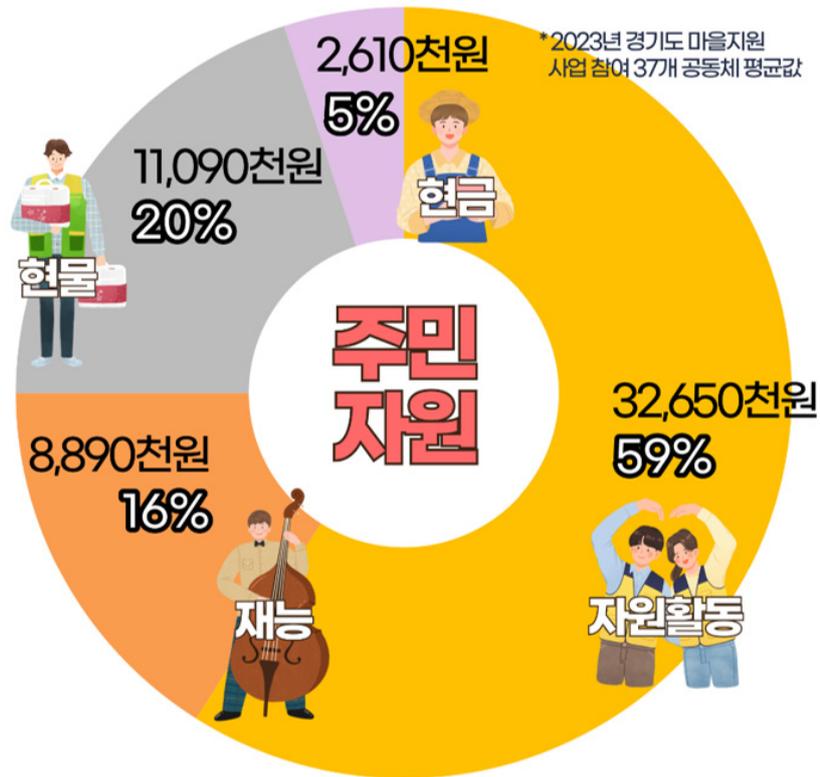
[그림 6] 투입된 주민들의 자발적 시간



마을사업을 하면서 행정의 보조금(지원금) 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여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총합을 화폐로 환산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자원은 1개 공동체당 평균 55,240,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1개

공동체당 지원받은 보조금 대비 2.9배나 많은 수치다. 즉 마을공동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은 2천 9백만 원 상당의 주민자원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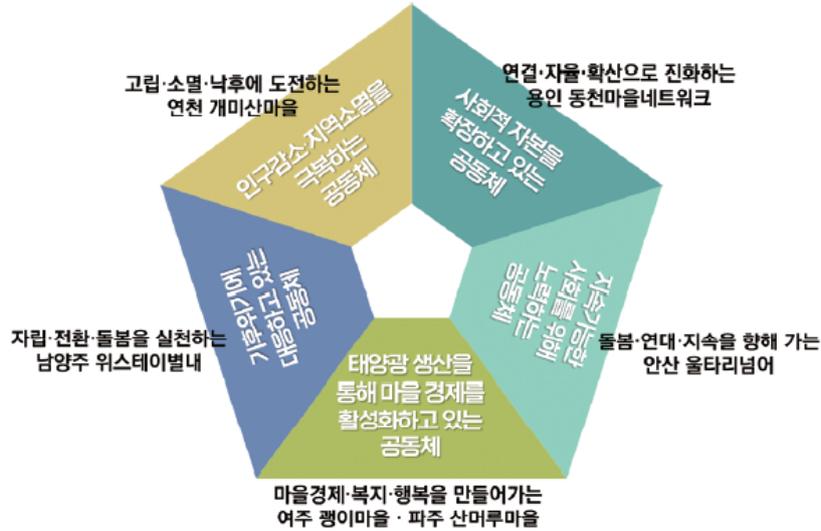
[그림 7] 주민자원의 화폐화



#### ● 마을임팩트 측정을 위한 노력

2024년 경기도 마을임팩트 측정은 경기도의 5대 난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5대 사회 난제는 ‘인구위기극복’, ‘기후변화대응’, ‘지역활성화’, ‘사회적약자배려’, ‘정보격차해소’이다. 이는 경기도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자 우리 마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을임팩트 측정에 있어서 앞선 방법론의 효과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임팩트를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림 8] 경기도 5대 난제와 마을임팩트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이 난제들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둘 경우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2025년에는 향후 10년간 마을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10가지 변화상을 「마을아젠다 4.0」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참고로 「마을 4.0 아젠다」는 ①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복지, ② 외로움, ③ 다문화, ④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 분열, ⑤ 디지털 전환과 경제·산업 구조변화, ⑥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에너지전환, ⑦ 마을위기와 재난대응, ⑧ 여성, ⑨ 교육, ⑩ 문화 등 10가지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4.0 아젠다는 단순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선제적 준비와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5. 맺으며

임팩트 측정은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나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더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좌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팩트 측정은 끝나지 않은 사회적 학습의 여정이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가치교환적 언어여야 한다. 무엇보다 임팩트 측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화폐화 측정, 빅데이터 분석, 생태계 접근 등 다양한 도구들은 결국 공익활동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지속가능한 지지를 이끌어낼 때 빛이 난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성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권 노사가 공동출연한 국내 최초의 공익재단으로서, 단순 기부를 넘어 ‘성과 연동형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재단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효과적인 임팩트 측정으로 보다 더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스리랑카 지역기반 여성자립·학교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과 협력하여 스리랑카의 취약 아동 영양 개선과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Home-grown School Feeding, HGSF)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소규모 영농인과 급식 조리사를 학교급식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영양 공급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지역 생산-소비-소득 창출이 선순환되는 구조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기후 변화, 경제 위기가 중첩되며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었고, 이로 인해 아동 영양 불안과 여성 생계 취약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GSF 사업은 아동의 학습 지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 영농인이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영농인을 양성하여 지역 소규모 농가가 채소, 달걀 등 식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조달,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여 생산물은 지역 내 유통을 통해 여성 영농인 가계의 추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장비, 급수 시스템, 종자 지원과 함께 재배 기술 교육, 가계 자금 관리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등 종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영농인이 곧 급식 조리사로 활동하도록 설계한 참여 구조는, 단순 수혜를 넘어 고용 창출과 자립 기반 형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여성들은 계절과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가며, 가계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비 마련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까지 스리랑카 2개 지구, 22개 구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0,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신선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600명 이상의 영농인 및 급식 조리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급식 제도에 단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공익재단-유엔세계식량계획-스리랑카 정부 3자 민관 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 연계가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올해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포용적 사업 모델을 통해 스리랑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 수놓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제주 수놓음 공동체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단순 협업생산을 넘어 마을 단위에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가치를 갖고 있다. 2000년도부터 제주는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로 기존 수놓음 공동체가 열어졌다. 공동체의 약화는 취약계층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 돌봄 서비스는 단순 지원 방식으로 한계가 명확했다.

우리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바로 '지역 돌봄 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돌봄의 주체를 지역 주민으로 바꾸고, 서로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체로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1년의 실험이 끝난 후 가장 큰 변화는 돌봄의 틈새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도적 돌봄이 포괄하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이주 배경 청년들의 정서 돌봄, 그리고 고립된 마을 어르신들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등 공동체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틈새 속에서 돌봄의 방식을 고민하던 제주의 공동체가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화를 공동체로 실현했다. 장애로 인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보호자와의 참여는 사회에 두려움을 갖던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다. 그들은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사회진입을 위한 농장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남성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취약계층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들은 마을 주민에서 이웃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함께 공동체로서 마을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 가족 공동체, 식생활권 돌봄, 독서돌봄 등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과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돌봄 공동체들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참여팀들의 소셜미션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함께 체계화했다. 자금을 지원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전문적인 멘토링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다졌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팀들의 고민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연대를 확장했다.

그 결과, 공동체들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가고 있다. 돌봄의 수혜자가 지역의 이웃이고, 서비스 생산자가 친구이자 가족이며, 심지어 공동체의 투자자가 수혜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제주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돌봄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넘어, '돌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매진할 것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전략적 지원 덕분에, 이 혁신적인 모델은 이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가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새정부에서도 돌봄은 중요한 전략적 과제에 포함되었고, 지역에서도 공동체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공동체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올해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돌봄의 가치를 진행한다. 8팀이 각자의 미션과 방식으로 제주의 수놓음 공동체 회복을 위해 1년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 즈음에 제주의 따뜻한 소식을 전국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피어난 자생적인 돌봄의 꽃이 우리 사회 전체를 포용하고 치유하는 숲을 이루도록, 우리는 사회 혁신의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11.07.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 ‘적절한 주거’를 위한 첫걸음, ‘튼튼한 주거복지기금’

이제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다.

재개발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 사회의 첫 시작을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청년. 어렵게 선정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보증금이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 몇백만 원만 있었으면,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로 표현되는 곳이 아닌 훨씬 좋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이 보증금 용자를 통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 및 주거 교육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 복지서비스 연계, 주거공간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튼튼한 주거복지기금)’을 기획하였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총 31가구(청년 14가구, 저소득층 17가구)가 ‘적절한 주거’로의 입주를 마쳤다는 점이다. 이중 8가구는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에서 거주하다가 적절한 곳으로 이사한 가구이다. 또한 24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짧아 매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했던 가구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점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주거’로 이주한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주거·금융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해 향후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특히 청년의 경우 연체 없이 상환(9가구) 시 이자 전액을 돌려줘서 ‘금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경험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컨설팅(9가구)을 진행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보 및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 지원사업 안내서'를 웹을 통해 배포하여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응자 여부뿐 아니라 향후 지원 방향까지도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일례로 가정 내 일이 생겨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외부 지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무사히 상환할 수 있었던 가구도 있었다.

본 사업만으로 지원가구 모두 집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예 주거 상향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구가 '적절한 주거'에 입주할 작은 희망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적절한 주거'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주거복지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11.26.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 제도 바깥 나홀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마중물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경력을 쌓아야 하니깐요. 일이 밀려 있어도 무조건 받습니다. 처음에는 단가가 낮으니까, 플랫폼에서도 마음껏 일을 몰아넣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경력 11년 차 출판 일러스트레이터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플랫폼업체의 수수료율은 높아지지만 일자리 진입장벽은 낮아지며 보수 단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소연이다. 1,041명의 프리랜서가 응답한 우리 공제회의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1년간 프로젝트 평균 계약기간은 5.6개월에 불과했고, 불규칙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응답자의 21.3%는 보수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정규직·전일제·단일 고용주와의 지속적 고용관계라는 전통적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비표준 고용형태 노동이 2020년 전 세계 고용의 40%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확산을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종속성과 전속성을 지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2020년 전후로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보호를 노동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 속도는 현실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당사자가 겪는 일의 전 과정 중 극히 일부만 보호되기 마련이다. 기업의 보호책임도,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일감·소득 불안정, 정보 비대칭, 협상력 열위, 비용·위험의 개인 부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 있다. 이들은 기존 제도에 기대기도, 국가만 바라보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렇기에 당사자 스스로의 자조적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서로 흩어져 일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그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은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새로운 유형의 단체로 구상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노동공제조직 설립이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설립 자원과 초기 사업이었다. 이미 조직된 당사자 단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공제' 활동에 곧바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사업을 우선 제공해 공제회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쌓아가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들의 모금과 기부로 최소한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확보했지만, 초기 지원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난제였다. 그때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기와 내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지원이었다.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정기적 저축이 어려운 편이다. 그럼에도 각종 비용과 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사회보험 보호는 취약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에서도 제약을 받는 만큼 '목돈 마련'의 필요성은 더 크다. 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응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공제회 회원들은 6개월마다 응원금을 받을 때마다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라며 "저축하는 보람이 생긴다"고 말했고, 장비 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렇게 빠르게 공제회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았고, 회원 확대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고정된 일터가 없는 환경에서 적금 납입을 증빙하는 간단한 서류 제출도 어려워하는 회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통장 잔액 부족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납입일을 놓쳐 응원금 신청 시기를 넘기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항의로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험이 축적되고 절차가 개선되면서 안내는 체계화되고 문의도 크게 줄어, 지금은 초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공제회는 아직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도 많지만,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보호영역을 제시하며 '노동공제'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과 배려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의 안전환경 조성, 역량강화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공제회가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보태주었다.

공제회는 앞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공제사업을 설계해 상호부조를 구현해 나가려 한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 지원 등 직장 복지가 부재한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알찬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노무제공자 퇴직공제나 공적연금과 같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용이나 공적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소득·경력 증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공제회 자체의 힘만으로, 그리고 회원들의 기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울타리와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의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향한 연대와 지원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적인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제도·권리가 부재한 새로운 노동영역이 확장되는 현실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일은 우리 경제와 고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제회의 출발부터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금융산업 노·사에 깊이 경의를 표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인내로 함께해 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12.10.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